

- 알프스 산맥을 통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번지화 -
2015 울주군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울 주 군 의 회

목 차

I. 연수 목적	2
II. 연수 개요	2
III. 주요 연수일정	4
IV. 방문국가 주요현황	5, 6
V. 주요 연수 내용	7
1. 산악관광개발 사례 견학	7
○ 샤프베르크	7
○ 추크슈비체	8
○ 융프라우	10
○ 산악관광개발 사례 견학 후기	12
2. 문화재 관광자원화 사례 견학	13
○ 잘츠부르크 구시가지	13
○ 노이슈반슈타인 성	15
○ 빈사자의 상, 카펠교	16
○ 두오모 성당, 스칼라 극장	17
○ 헤르만 헤세의 길 및 무덤	18
○ 산악관광개발 사례 견학 후기	19
VI. 의원별 정책 및 시사점	20
VII. 연수 총평	26

I 연수목적

- 해외 선진지의 환경, 문화, 행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지방의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특히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 등 우리군 역점사업 추진에 있어 해외 우수 시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함.

II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5. 08. 21 ~ 08. 28(6박 8일)
- 연수단 : 10명
의원 : 조충제 의장, 한성을 부의장, 정수진 의회운영위원장, 이동철 의원,
권영호 의원, 박기선 의원
직원 : 정성욱 의회사무과장, 김동열 건설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철한, 김락현
- 방문국가 : 서유럽국가(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 주요 방문지역 : 잘츠부르크 → 기르미슈파르텐 → 루체른 → 인터라켄 → 루가노 → 밀라노
- 연수내용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서유럽국가에 있는 알프스 산맥의 다양한 개발 사례 직접체험, 국내 산악관광 1번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영남알프스 개발 정책에 반영코자 함.
- 연수방법
- 자체 기획한 일정을 바탕으로 전문여행사와 협의를 통한 연수
- 현지 견학 조사 및 문헌조사

Ⅲ 주요 연수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역	주요일정	비고
제1일 08.21(금)	인천공항 14:25 출국	프랑크푸르트 경유 잘츠부르크 22:05(현지시각)		- 이동 및 숙소 도착	LH713 LH1108
제2일 08.22(토)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잘츠카머굿	- 샤프베르크 산악열차 탑승 - 잘츠부르크 대성당 - 호엔잘츠부르크 성 견학	전용차량
제3일 08.23(일)	잘츠부르크	튀센	카르미슈파르텐	- 추크슈비체 산 전망대 견학 - 노이슈반슈타인성 견학	전용차량
제4일 08.24(월)	튀센	인터라켄	루체른 시내 및 인터라켄	- 루체른 호수, 빈사자상, 카펠교 - 인터라켄 관광청 간담회	
제5일 08.25(화)	인터라켄	루가노	융프라우 등반 후 루가노이동	- 융프라우 등반 및 스펡크스 전망대	
제6일 08.26(수)	루가노	밀라노	루가노 시내	- 헤르만헤세의 길 및 무덤 견학 - 코모 경우	
제7일 08.27(목)	밀라노 14:20 출발	프랑크푸르트 17:35 출발	밀라노 시내	- 두오모 성당, 스칼라 극장	
제8일 08.28(월)	프랑크푸르트	인천 10:45 도착		- 인천 공항 도착 및 울산도착	

IV 방문국가 주요 현황

① 오스트리아

- 국명 : 오스트리아
- 위치 : 중부유럽 하부
- 면적 : 83,858km² (남한 면적보다 다소 작음)
- 기후 : 대륙성 기후
- 수도 : 빈 ○ 방문도시 : 잘츠부르크
- 인구 : 845만(인구 밀도= km²당 100명)
- 인구구성 : 게르만계 85.8%, 소수민족 2.9%, 상주 외국인 11.3%
 - ※ 상주 외국인 : 유고슬라비아인 40%, 독일인 15%, 터키인 13%, 기타 32%
- 종교 : 가톨릭 72.0%, 개신교 6.1%, 이슬람 4.9%, 무종교 12.2%, 기타 4.8%
- 언어 : 독일어
- 건국일 : 1950년 10월26일(최초 건국연도는 996년)
 - ※ 1938년 독일에 강제 합병된 후 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50년 승전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 독립을 선언한 날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② 독일

-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
- 위치 : 서유럽
- 면적 : 357,022km²(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 기후 : 온대성, 연간 섭씨 -0.8~19.5도,(13년 연평균 9.1도)
- 수도 : 베를린(Berlin) ○ 방문도시 : 카르미슈파르텐, 뤼센
- 인구 : 8,115만 명,(독일인 91.5%, 터키인 2.4%, 기타 6.1%)
- 민족(인종) : 게르만족
- 언어 : 독일어
- 종교 : 가톨릭(34%), 개신교(34%), 이슬람(3.7%), 무교 및 기타(28.3%)
- 건국일 : 1871.10.3(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독일 제2제국 탄생)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3 스위스

- 국명 : 스위스
- 위치 : 북위 45~48도의 유럽 대륙 중심부에 위치
- 면적 : 41,285km²(60%는 알프스산지)
- 기후 : 온난성기후
- 수도 : 베른(Bern) ○ 방문도시 : 인터라켄, 루가노, 루체른
- 인구 : 804만명 (이중 외국인 인구는 186만명임)
- 민족 : 게르만족과 켈트족 주류
- 언어 : 독일어(63.7%), 불어(20.4%), 이탈리아어(6.5%), 레토로만어(0.5%)
- 종교 : 가톨릭(41.8%), 개신교(35.3%), 무종교(11.1%), 이슬람교(4.3%) 등
- 건국(독립)일 : 1291년 8월 1일
- 정부형태 :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공화국 형태

4 이탈리아

- 국명 : 이탈리아 공화국
- 위치 : 남부유럽
- 면적 : 301,333km² (한반도의 약 1.36배)
- 기후 : 지중해성 기후
- 수도 : 로마 (Roma) ○ 방문도시 : 밀라노
- 인구 : 61,50만명
- 민족 : 이탈리아인(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 언어 : 이탈리아어(국경 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병용)
- 종교 : 기독교(80%, 대부분 로마가톨릭), 기타(20%, 개신교, 이슬람교 등)
- 건국(독립)일 : 1946년 6월 2일(이탈리아 공화국 선포)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1. 산악관광 개발 사례

□ 오스트리아의 샤프베르크



샤프베르크 반을 타기 위해 줄선 관광객들의 모습.



샤프베르크반의 톨니 궤도식 열차

◇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되는 산이 바로 샤프베르크(Schafberg)다. 마리아와 일곱 아이들이 함께 ‘도레미송’을 불렀던 곳이라는 설명이라면 모두가 ‘아’ 할 것이다. 오스트리아 잘쯔카머구트의 장크트 불프강 지역에 위치한 이 산은

해발 1,782m. 알프스 산맥 중 비교적 낮은 봉우리지만, 때문에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알프스 산맥을 병풍처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불프강 마을에서 많은 루트의 등산로가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기에 트레킹을 하기 위해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물론, 샤프베르크 반 으로 불리는 산악 열차를 이용, 정상까지 쉽게 오를 수 있

다. 소요 시간은 약 35분 정도. 1893년 최초로 개통된 이 열차는 톱니 궤도식 열차로 볼프강 호수가에 자리하고 있는 장크트 볼프강 마을에서 시작하여 정상 부근 까지 운행한다.



철로의 총 길이는 5.83km로 디젤과 증기 기관차가 운행되고 있다. 산 중턱에 한번, 정상에 한번, 이렇게 두 번 정차를 하며, 중턱 정류장에서도 가벼운 복장을 한 많은 이들이 정상까지 트레킹을 하기 위해 하차한다. 산악열차를 타고 산을 오르면

샤프베르크 정상에는 레스토랑과 호텔 등이 위치한다. 서 보는 알프스 산맥과 볼프강호 그림같은 풍경은 이 산을 찾는 이유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의 배경이었던 점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독일의 추크슈비체



추크슈비체 빙하고원까지 이어지는 산악열차.

◇ 독일의 최고봉 ‘추크슈비체’. 뮌헨에서 남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가르미슈 파르텐기르헨이라는 지역에 위치해있다. 높이 2,963m로 독일 바이에른주(州)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지역이기도 하다.



추크슈비체 빙하고원.

을에서부터 운행되는 케이블카(건설년도 1924~1926년)로도 바로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정상과 아이프제 마을로 연결된 케이블카

있는 유일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 때문인지 만년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에 의해 봉헌된 독일에서 가장 높은 예배당이 있어 독일에서는 결혼식장으로도 인기 있는 명소이며, 국경에 위치한 만큼 전망대에서 오스트리아쪽 전망대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정상까지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다. 1820년부터 첫 등정을 시작한 톱리바퀴 열차는 해발 2600m에 위치한 빙하고원 까지 연결되어 있다. 빙하고원에서 추크슈비체 정상까지는 다시 빙하케이블을 타고 이동할 수 있으며, 물론 추크슈피체 산 서쪽으로는 아이프제 마

정상의 전망대에는 식당과 카페, 기념품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망대 외부에는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의 수천개에 이르는 산봉우리가 만들어 낸 장관을 볼 수 있는 전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톱리바퀴 열차 건설과정과 추크슈비체 산 역사를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2962 파노라마 라운지는 바이에른의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독일 알프스 중 유일하게 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추크슈비체 정상 시설. 오스트리아쪽 전망대.

□ 스위스의 융프라우



인타라켄에서 산악 열차. 라우터부르넨까지 이어진다.

◇ 스위스령 알프스 산맥의 여러 높은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마다 산악 등산열차가 오르내리고 있다고 한다. 이중 가장 잘 알려졌다고 할 수 있는 융프라우 철도는 알프스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인 융프라우와 알레취 빙하가 시작되는 유럽 최고도의 역 융프라우요흐(해발 3,454m)까지 1년 365일 안전하게 여행객들을 태우고 운행 중이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결리는 시간은 50분이 걸린다. 인터라켄을 출발할 경우 라우터부르넨(해발 806m)에서 한번, 클라이네샤이텍(높이 2,061m)에서 또 한번 기차를 갈아타야만 융프라우 요흐에 갈 수 있다. 클라이네샤이텍 부터 약 2km는 완만한 초원이지만, 나머지 7km는 모두 아이거와 뮌히의 산허리를 뚫은 터널이다.

1912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했으며, 철도 개척자인 아돌프 구에르첼러에 의해 16년이라는 긴 공사기간에 걸쳐 건설되었다.

100년 동안 사람과 융프라우를 연결해 온 이 철도는 최대경사도 25°의 아프트식으로, 9.3km를 오르는 데



아이거반트역에서 아이거북벽을 감상할 수있다.

터널 속에 건설된 해발고도 2,865m의 아이거반트역에서는 아이거 북벽의 1,800m 아래쪽에 있는 그린델발트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등 기차여행 만으로 알프스에서 가장 험한 아이거와 융프라우 두 개의 산을 동시에 감상하며 오를 수 있다.



융프라우의 만년설

스핑크스 전망대(해발 3,571m)에서는 알프스 최장의 알레취 빙하(길이 22km)와 독일 흑림지대까지 조망할 수 있다. 융프라우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된 계기는 바로 융프라우 철도. 철도 개척자의 당시 의도는 알 수 없었으나 그와 연계해 스위스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연중 찾아

올 수 있도록 일찍부터 계획하고 개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정상 부근 빙하 30m 아래의 얼음 궁전에는 다양한 얼음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얼음 궁전에는 100여년전 철도 개척 당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얼음궁전에는 100여년전 철도 개척 당시 사진들이 걸려있다.

□ 산악관광 개발사례 견학 후기

◇ 우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유럽 알프스의 산악관광 사례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음. 호수와 초원이 중심이 된 샤프베르크, 그리고 기암절벽의 추크슈비체, 만년설의 융프라우까지 같은 시기에 다른 느낌인 산을 둘러본 점은 참으로 잘한 것 같음. 규모 면에서 영남알프스를 유럽에 알프스와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산악자원 개발로 막대한 관광수익을 올리며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한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던 계기였음.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산을 찾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각종규제에 막혀 공급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음. 우리의 ‘걸어서 등산’ 위주의 정책은 산을 특정인들만의 소유로 만들고 있음. 자신의 능력과 체류시간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수단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 같은 접근 수단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관광객들의 자연스런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영남알프스 개발이라는 우리군의 역점사업에 유럽의 발전적인 산악관광개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2. 문화재 관광자원화 사례

□ 짤츠부르크 구시가지 일원



호엔짤츠부르크 성에서 바라본 구시가지 일원. 짤츠부르크 대성당에서 오페라공연이 열리고 있다.



케트라이데 거리. 구시가지 전체가 문화유산이다.

◇ 1965년 개봉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 도시 짤츠부르크. 모차르트의 탄생 도시로도 유명하다. 영화나 모차르트의 유명세 만큼이나 지금까지도 세계각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 곳 있는 곳이다. 영화에 등장한 미라벨 정원이나 모차르트의 생가 등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면서 주요 관광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이 도시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 개봉 당시나 현재의 도시의 모습이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도

시를 보존하기 위한 오스트리아 국가의 노력이 필사적이다.



미라벨 정원. 사운드오브뮤직의 촬영장소로 유명하다.

지난 1976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구시가진 보존법은 해를 거듭 할수록 강화되어 왔으며, 본인의 건물 사사로운 것 하나 리모델링 할 때도 건축당국의 통제를 받는가 하면 개량 보수 과정까지 일일이 기록에 남기고 있다. 1703년에 생긴 커피숍이 지금까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운영 중이며, 자신들이 물려받은 문화 자산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 주는 것을 꼭 지켜야할 의무처럼 여기고 있었다.



호엔잘츠부르크 성채로 트램 형식의 케이블카.

구시가지 내에 있는 잘츠부르크 대성당은 1779년부터 모차르트가 오르간을 연주했던 성당으로 유명하며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성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2세기에 세워져 인근 독일까지 카톨릭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성당 내에 있는 6,000개 파이프가 든 오르간은 유럽에서 가장 크다.

호엔잘츠부르크 성채는 잘츠부르크의 상징인 곳으로 구시가 남쪽, 뮌히스베르크 언덕의 120m 지점에 위치 한다. 구시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구시가 어디에서든 보이기에 잘츠부르크 구시가지 관광의 필수 코스다. 트램 형식의 케이블카로 쉽게 오를 수 있다.

□ 노이슈반슈타인 성



디즈니랜드 성의 모델로 유명한 노이슈반슈타인성.

◇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엽서와 광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 봤을 것이다. 디즈니랜드 성의 모델이기도 하다. 독일의 성중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성중 하나로 바이에른의 4대 국왕 루트비히 2세(1864~1886년 재위)가 오페라 ‘로엔그린’ 중 백조의 전설에서 모티브를 얻어 지은 성이다.

1869년 착공되어 1896년 완공 되기전 전 갑작스런 루트비히 2세의 죽음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아직 미완성이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왕이 무려 17년이라는 기간동안 성을 짓는데 약 7,000억원의 공사비를 사용했기에 미치광이 왕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성입구까지 버스와 마차를 운행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

성 내부 관람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실제 이 성에 루트비히 2세가 머문 기간은 9일에 불과하며, 백조의 성인 만큼 성 곳곳에 백조 장식품과 문이나 벽면 등에서도 백조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 또 외관은 중세지만 중앙난방, 수도, 수세식 화장실, 심지어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까지 근대 문명의 이기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국내 관광객들의 증가에 따라

□ 빈사자의 상, 카펠교

◇ 빈사의 사자상



루체른 빈사자상. 알폰을 든 현지인이 관광객을 맞고 있다.

루체른 호프교회 북쪽의 작은 공원 안에 있는 사자상으로, 프랑스혁명 당시인 1792년 8월 10일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물고 있던 궁전을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덴마크 조각가 토르발센의 작품으로 1821년 독일 출신인 카스아호른에 의해 완성되었다.

스위스 용병들을 상징하는 사자가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사자의 발 아래에는 부르봉 왕가의 문장인 흰 백합의 방패와 스위스를 상징하는 방패가 조각되어 있다.

◇ 카펠교



루체른 빈사자상. 알폰을 든 현지인이 관광객을 맞고 있다.

카펠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로 루체른 로이스강의 남북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333년에 놓여졌다. 지붕을 얹어 비가와도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중세풍의 이다리는 600여년 긴 세월 위용을 자랑했지만 1993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285m 중 절반을 잃었다. 스위스 정부는 화재직후 400만 스위

스 프랑을 투입해 1년만에 끊긴 다리를 다시 이었으며 화재의 상처를 그대로 남겨뒀다. 관광객들이 눈으로 보며 문화재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했다. 다리 지붕 들보에는 스위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를 표현한 112점의 삼각형 판화그림이 있었으나 85점이 불에 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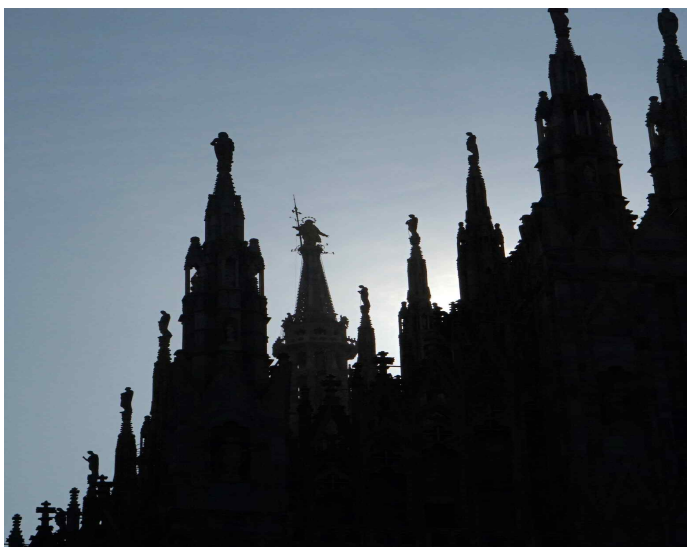
□ 두오모 성당, 스칼라 극장



밀라노의 상징 두오모 성당

◇ 두오모 성당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의 상징이다. 1386년 착공, 450년 후인 19세기 초 완성된 이탈리아 고딕 건축물의 절정이다. 높이 157m, 너비 92m의 웅장한 몸체에 135개의 첨탑과 2,245개의 조각상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가장 높은 첨탑에는 황금마리아상이 도시를 내려보고 있다. 지난 6월 22일 국내 한 기업측이 불법으로 띄운 드론이 마리아상 바로 아



국내 한 기업이 불법으로 띄운 드론으로 인해 훼손될 뻔한 황금 마리아상

래 조명기구에 드론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단순한 종교적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가장 중심적인 장소이며, 과거 도시계획자들은 한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두오모를 배치한 후 주변에 시민광장, 관청, 공공시설, 상가 등을 배치했다 한다.



스칼라 극장

◇ 스칼라 극장의 현재 건물은 그 장소에 두 번째로 지어진 건물이다. 베르디와 푸치니가 오페라를 초연했던 곳으로 비스콘티가의 비 스칼라의 이름을 따서 만든 오페라 극장이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폐허가 되었지만 곧 다시 복원되었다. 당시 최신 최고의 시설로 복원됐으며, 객석도 3,200석이나 된다.

<노루마>, <오텔로>, <팔스타프>, <나비부인>, <투란도트> 등 여러 명작을 초연한 역사가 있으며, 언제나 일류 지휘자와 많은 명가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토스카니니에게 연마된 전통을 계승하는 관현악이나 합창도 상설되어 있다. 또한 이 극장은 실내 오페라를 상연하는 소극장이나 오페라 박물관, 발레학교 등의 시설도 있다.

□ 몬타놀라의 헤르만 헤세의 박물관



헤르만 헤세의 박물관

◇ 독일의 소설가이자 시인 헤르만 헤세, 그가 1962년 숨을 거두기 전까지 43년간 여생을 보낸 곳은 스위스다. 루가노에 자리한 몬타놀라. 이곳에서 그는 195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유리알 유희>를 비롯하여 <싯다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등 그의 주요 작품 대부분을 집필 했다. 총 4층으로 구성된 박물관에서는 헤세의 손길이 닿았던 타자기, 펜, 저서, 그림 등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몬타놀라 곳곳으

로 뻗어 있는 헤세의 산책길. 전코스를 다 돌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헤세의 무덤이 있는 젠틸리노 아본디오 성당으로 앞 묘지에서 그의 묘소를 만날 수 있다. 박물관 입구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헤세를 추억하기도 하며, 산책길에 놓여 있는 벤치에 앉아 헤세가 바라보던 루가노 호수의 풍경을 볼수도 있다.



헤르만 헤세의 산책로, 그리고 무덤

□ 문화재 관광자원화사례 견학 후기

구도심 문화와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하면서 자국 문화적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음. 보존과 주민생활과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도시 기능을 재생시키고, 관광자원화를 이뤄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개별 문화재 보존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와 달리 도시 계획과 연계해 도시와 역사 문화 환경의 조화를 이룸. 문화유산 뿐만아니라 구 시가지의 건물까지 철저한 계획과 통제로 관리되고 있음.

특히 유적지 뿐만아니라 도심 건물 하나하나, 심지어 산책길에 놓여진 의자에까지 스토리를 입혀, 에 스토리를 입혀 그 가치를 높이고 있음.

지역 고유의 역사 및 문화 컨텐츠 뿐만아니라 근대 건축물과 경관물까지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재조명하고, 문화 유적 만의 보존 및 개발에 국한하지 않는

지역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또한 이를 음악과, 미술, 대중 문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하는 등 지역 브랜드 이미지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관광객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VI

의원별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산악관광 개발 사례

한성을 의원

산을 대하는 의식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다. 연수를 통해 방문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은 대표적 산악관광 대국. 그들의 개발사례를 볼 때 보존 또는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실정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관광으로 거두어 들이는 수익이 그들의 주요 먹거리 인 만큼 개발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보존을 소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뒤따르고 있었다. 케이블카, 산악열차 철로, 스키 리프트 등 안내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도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인위적 시설들. 그럼에도 관광객 유치와 그들이 편의 도모를 위해 두개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발도 아직 진행 중이었다.

산 정상까지 연결된 산악열차나 케이블카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 정상에도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춰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수익을 창출 하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과 여행 여건에 따라 빠른 케이블카를 또는 산악 열차를 이용한다던지 다양한 방법으로 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자연환경에 인위적 시설이 더해지면서 더 다양해진 코스는 일회성 관광지가 아닌 찾는 이들이 오래 머물 수밖에 없도록, 또 다시 찾을 수밖에 없도록하고 있다. 더 많은 관광객 흡수를 위해 더 새로운 것을, 또 다른 즐길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울주군 역시 영남알프스를 국내 산악관광 1번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핵심은 신불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라 하겠다. 알프스의 산들처럼 누구나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물론 국내 정서가 그렇듯 케이블카 추진과 관련 환경단체와의 지역주민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실정이어서 녹록치 않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좀더 적극적으로 자연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인공암벽장, 하늘 역사길, 둘레길, 작천정 별빛야영장 등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케이블카와 접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커질 것이다. 대신 유럽처럼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훼손된 환경에 대한 복원 방안 등은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산악관광 개발 사례

권영호 의원

유럽인들에게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다. 이번 연수에서 그들의 산이 가장 부러웠던 것은 아주 먼 곳이지만 영남알프스보다 어찌면 더 가깝게 느껴졌다는 것. 인간과 자연을 좀더 가깝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시설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이용되어온 관련 시설들의 목적이 처음은 관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짧게는 수십년, 길게는 백여년전 만들어 놓은 산악열차나 케이블카 등 관련시설이 현재 그들의 먹거리가 되는 핵심 인프라라는 것이다. 산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관광지도 산 처럼 접근성도 뛰어났다. 노이슈반슈타인성, 호엔잘츠부르크 성 등 조금 높거나, 멀다 싶으면 마차나, 버스, 전동차, 심지어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 목적지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다. 관광대국으로서의 관광약자에 대한 철저한 배려로 비춰졌다. 그만큼 많은 계층의 관광객들이 어느 곳이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 관광객들의 자연스런 유입은 당연해 보였다.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논리로 노인과 장애인 등 보행 약자에게도 산에 오를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에 그다지 공감하지 못했지만 이번 연수에서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가 관광활성화 사례의 가장 기본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우리의 영남알프스에도 하늘 역사길, 둘레길, 곳곳의 등산로, 그리고 복합웰컴센터, 인공암벽장, 작천정 별빛 야영장 등 개발 되었거나 개발 중인 다양한 콘텐츠

들이 있다. 또 지역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유적지까지. 주요 콘텐츠나 유적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점과 지점들을 연결하는 순회버스 도입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계절별, 연령별, 그룹별 우리지역을 찾는 목적에 따라 관광, 운동, 휴향 등 모두 즐길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용이해 질 것이다.

인tera켄 관광청과 간담회 박기선 의원

◇ 인tera켄

- 융프라우(4158m) 등반을 위해 하루 전날 '인tera켄'을 방문했다. 지리적으로 스위스의 정 중앙에 위치한 이 도시는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로 가는 시발점이다. 도시의 이름은 투너 호수와 브린쯔 호수 사이에 있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해발 567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선선한 날씨, 한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 두 개의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융프라우와 함께 스위스 알프스 산맥 중 가장 높은 세봉우리에 속하는 아이거, 뮌히까지 위엄 있는 주변 자연경관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인tera켄 관광청과 간담회.

◇ 인tera켄 관광청과 간담회 정리

- 인tera켄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객 급증이 가히 폭발적이라 한다. 스위스 관광에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알짜 명소가 바로 '인tera켄' 이기에 하루 저녁 인tera켄에 머무는 동안에도 어렵지 않게 한국인들을 볼 수 있었다. 지난 2014년

7만3,675명이 다녀갔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3%나 늘어난 수치다. 1위 스위스, 2위 중국, 3위 아랍연합에 뒤 이은 방문국가 4위를 기록 하고 있지만 그 증가는 가장 높다. 특히 배낭여행객들의 인tera켄 방문이 1년 만에 50% 가량 늘었다하니 무엇이 국내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인터라켄 관광청과 간담회.

없었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대해 관광청 관계자는 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점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이라 설명한다.

인터라켄 관광청도 국내 관광객 증가에 맞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마케팅을 위한 국내 사무실 운영에서부

터 한국어로 된 안내책자 제작까지, 또한 국제 규모의 국내 행사에는 홍보부스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인터라켄의 성수기는 스위스 국경일(8월1일)이 있는 8월. 이벤트 행사가 이 시기 굵직한 이벤트행사가 집중되어 호텔을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시가 분빈다. 반대로 비수기는 겨울. 인터라켄 관광청도 비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겨울철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산악열차 뿐만아니라 케이블카와 스키리프트 등 산 전반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충분해 보였지만, 2조원을 들여 그린델발트를 시작점으로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악관광을 위한 개발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신설, 하나는 노후 교체로 진행되는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마친 상태며, 노선에 포함되는 농장주들의 반발을 해소시키기 위해 협상이 진행 중이라 했다.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된 융프라우. 그들에겐 현재 그리고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다.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그 지역 환경단체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개발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 자원에 대한 복원도 반드시 지켜진다고 한다. 관광청은 또 스카이다이빙, 협곡점핑, 번지점핑, 협곡타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키, 빙벽등반, 빙하트레킹, 등산, 쥘 라인, 급류타기, 제트보트, 워터스키, 웨이크보딩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매진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산과 호수 등 자연과 인간을 더 가

카이 연결해주는 인위적인 시설이 바탕이 되고 있다. 환경보존이라는 명분아래 무조건 안된다는 사고방식을 떠나 철저한 계획아래 자신들이 가진 자연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문화재 관광 자원화 사례

정수진 이동철 의원

-문화자원의 보존의 미래 먹거리 창출.

관광 대국으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를 돌며 문화재 유지관리와 활용방안을 벤치마킹 하는 기회가 됐다. 호엔잘츠부르크성, 잘츠부르크 대성당, 빈사자상, 카펠교, 두오모 성당, 스칼라 극장 등 세계적인 유적지는 물론, 방문하는 도시의 구시가지 역시 지역 전체가 문화재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지어낸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개발보단 보존을 우선시 한 후손들의 노력의 결과다. 관리 역시 철저한 계획과 통제로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문화유산에 대한 이 같은 그들의 노력은 결국 막대한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지역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현재도 미래의 역사.

루체른 카펠교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333년 놓여진 이 목조다리는 600여년 긴 세월 위용을 자랑했지만 1993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285m중 절반이 소실됐다.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위스는 화재사건도 하나의 역사로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끊긴 다리를 다시 이었다. 화재의 상처를 그대로 남겨둔 채, 관광객들로 하여금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처를 일깨우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1993년 화재는 카펠교의 역사며, 문화재 훼손사례에 대한 상처를 일깨우는 교훈을 주고 있다.

-문화재 보존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원 통제

유료 관광지의 경우 시간별 입장 인원수를 철저히 제한한다는 점이 특이했다. 예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간내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무질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 사례를 최소화하고 찾는 관광객들에

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이 또한 그들만의 문화재 보존 대책임을 알 수 있었다.

-문화재의 스토리텔링화

지역 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화도 본받을 점이다. 음악의 도시 쾰른부르크. 영화 사운드오브 뮤직은 이 도시 전체를 스토리 텔링화한 대표적 작품으로 이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호엔쾰른부르크성, 쾰른부르크 대성당, 빈사자상, 카펠교, 두오모 성당, 스칼라 극장 등 대표적 문화유적지에서부터 구도심 건물하나에 이르기까지 스토리가 입혀져 있었다. 우리 지역 역시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물과 역사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도시의 경관은 미래를 위한 사업.4

유럽의 구도심 대부분 주거단지와 같은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내부만 리모델링한다. 옛 모습 그대로 보전되고 있지만 실내는 현대식이다. 사소한 것 하나 변경을 하더라도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소유주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물려받은 문화유산인 만큼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켜야할 의무로 여기고 있다. 물론 긴 역사를 동안 다양한 중세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석재로 오랜 기간에 걸쳐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 과거 우리나라의 건축방식과는 너무나 대조된다. 하지만 건축 기술 이 발달한 현재까지도 우리지역에는 건축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렇기에 통일성도 없다. 울주의 경우 울산에서 개발 여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 그리고 개발되는 지역만이라도 지역만의 특색을 갖춘 도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도시경관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VI

연수 총평 ...조충제 의장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는 목적 하에 다녀온 국외연수. 세금으로 가는 연수이기에 자칫 외유성 연수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연수 일정을 짜는데도 신중을 기했다. 주어진 기

회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이어졌다.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일정에 여행사에서도 기획하기 힘들다며 혀를 내두른다. 오스트리아의 샤프베르크, 독일의 추크슈비체, 스위스의 융프라우까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 산들을 한 번의 일정에 모두 소화한 경우도 드물다 한다. 물론 의원별 자부담이 늘어났고, 숙식 또한 그만큼 부실해졌지만 그럼에도 한 코스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석하여 가이드나 현지 관계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등 적극적인 동료의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다.

6박 8일이라는 빠듯한 일정 속에 넓은 알프스령 산맥의 나라별 대표 산을 보기 위해 먼거리를 이동하느라 무척 힘들었고, 촉박한 시간상 좀 더 많은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일정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그 지역 공식기관과의 미팅이 부족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 점 역시 그렇다. 자신들의 역사 문화유적들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또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역 또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핵심산업으로까지 승화시킨 그들의 자세는 본받을 점이 참으로 많았다.

공식적인 일정을 떠나, 매일 숙소 도착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또는 이른 아침 호텔 밖을 나가 그들의 생활문화 하나 하나를 카메라나 머릿속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동료의원들의 모습. 물론, 사소한 것 하나 하나 보고서 지면에는 모두 담지 못하겠으나 분명 지역 발전과 22만 군민들을 위한 시간이었음은 확신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가 배워온 내용들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지역발전에까지 녹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다.